

## 유럽지역 방산 현황 평가와 한국의 전략

### Assessment of the Defense Industry in Europe and Korea's Strategic Approach

서형진 (국방기술품질원 연구자문위원)

#### <초록>

2022년 폴란드에 K2 전차 수출을 계기로 유럽 지역이 우리의 새로운 방산 수출 대상으로 큰 관심을 끌고 있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 지속되고 '유럽 재무장 계획'에 따라 8,000억 유로라는 막대한 국방 재원이 향후 4년간 유럽의 군사력 건설에 투입될 예정이어서 우리의 방산 수출 여건은 나쁘지 않다. 그러나 EU의 유럽산 무기 우선 구매 정책과 보호주의 블록 강화가 예견되는 등 여건이 녹록하지 않다. 특히 유럽 방산 기반이 재구축될 향후 4~5년을 대비하여 미리 전략적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우리의 방산 수출에 큰 장애가 생길 수 있다. 따라서 이에 대비한 장·단기 대책과 지역별 맞춤 전략을 추진하고 범정부적 역량을 결집하여 K-방산을 EK(Europe-Korea)-방산으로 전환하는 선제적이고 과감한 정책 추진이 필요하다.

#### <Abstract>

Following the export of K2 tanks to Poland in 2022, European markets have emerged as a new and increasingly significant destination for South Korea's defense exports. Amid the ongoing Russia-Ukraine war and 'REARM Europe Plan,' an estimated 800 billion euros in defense funding is expected to be allocated over the next four years for the buildup of European military capabilities, which will create a relatively favorable environment for Korea's defense industry. However, challenges remain, particularly with the European Union's preferential procurement policies, which favor domestically produced weapons, and the anticipated strengthening of protectionist measures within the bloc. Without proactive strategic responses, especially in light of the anticipated reconstruction of Europe's defense industrial base over the next 4 to 5 years, Korea's defense exports could face significant obstacles. Accordingly, it is imperative to formulate both short-term and long-term countermeasures, implement region-specific strategies, and mobilize whole-of-government efforts to transform 'K-Defense' into 'EK-Defense' through bold and preemptive policy initiatives.

본 글에 게재된 내용은 저자의 개인적 견해에 바탕을 둔 것으로, 경제기술안보연구원의 공식적 견해가 아님을 밝힙니다.

### □ 유럽 지역 방산 수출 현황 및 평가

유럽 국가들은 역사적으로 선진국이자 군사 강국이었다. 방위산업 분야에서도 유럽은 무기체계 수출국으로 인식되어 왔으나,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계기로 유럽 방산의 상대적 낙후성이 부각되면서 우리의 방산 수출 대상국으로 부상하였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 발발하고 2022년 폴란드에 K2전차가 수출되면서 국민적 관심이 쏠리고 연이은 유럽으로의 방산 수출 낭보가 전해졌다. 물론 '22년 이전에도 북유럽 일부 국가를 대상으로 군수지원함(노르웨이, '13년)과 K9 자주포(노르웨이·핀란드, '17년, 에스토니아, '18년)가 수출된 사례가 있었으나 방산 수출 규모나 종류 및 대상 국가에 있어 매우 제한적이었다. 하지만, 아래 표와 같이 '22년 이후 최근 3년간의 對유럽 방산 수출 실적과 비교하면 그 차이를 확연히 실감할 수 있다.

[표1] 최근 3년간 주요 방산 수출 계약현황(연합뉴스, 중앙일보 등 10개 기사 종합)

구분	수출 대상국	수출 업체	수출 품목	계약 금액
2022	폴란드	현대로템	K2 전차 (1차)	33.6억불
	폴란드	한화에어로스페이스	K9 자주포 (1차)	24.0억불
	폴란드	한화에어로스페이스	천무 (1차)	35.5억불
	폴란드	한국항공우주산업	FA-50	30.2억불
2023	튀르키예	현대로템 등	전차 부품	2.9억불
	루마니아	LIG넥스원	신궁	비공개
	폴란드	한화에어로스페이스	K9 자주포 (2차)	26.7억불
2024	폴란드	한화에어로스페이스	천무 (2차)	16.4억불
	루마니아	한화에어로스페이스	K9 자주포	10.0억불

최근 유럽 지역 방산 수출이 활발하게 이루어진 이유로, 먼저 세계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명품 무기와 우리의 기술력 및 단기간에 수출 물량을 납품할 수 있는 방산 생태계 등 국내적 요인을 꼽을 수 있다. 다음으로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발발로 촉발된 유럽 안보 상황과 이에 따른 유럽 국가들의 무기 구매 수요 및 이러한 무기 구매 수요를 단기간에 충족할 수 없는 유럽 지역 방산 공급망 부실 등 외부적 요인이 큰 영향을 미쳤다.

이러한 배경에 근거하여 유럽 지역에 대한 우리의 방산 수출이 지속적으로 확대되기 위해서는 국방 연구개발 투자를 늘리고 좋은 무기체계를 계속 만들어내는 등 우리나라의

강점들을 지속 발전시키는 한편, 유럽 지역의 안보 환경 및 방위산업의 변화를 자세히 살펴보고 대응 전략을 사전에 수립하여 추진하는 것이 중요하다.

### □ 최근 유럽 안보 상황

러시아의 군사적 위협은 현재 진행형이다. 러시아는 2008년 벨라루스를 공격했고 2014년에는 크림반도를 합병했으며 급기야 2022년에는 우크라이나를 침공하고, 같은 해 유럽 재래식 무기 감축 조약도 탈퇴했다. 현재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은 지속되고 있고 미국 주도의 종전 협상도 난항을 겪고 있다. 러시아의 군사적 목표가 달성되지 않는 한 원만한 종전은 기대하기 어렵고, 설사 전쟁이 끝난다고 하더라도 유럽 국가들이 느끼는 러시아의 군사적 위협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기존의 미국 주도의 NATO 중심 안보 체계에 변화의 조짐이 감지되고 있다. 미국 트럼프 2기 행정부의 국방 안보 정책은 '거래 기반 동맹관계' 및 '무임승차 불가'를 강조하며 NATO 국가들에 국방비 증액을 요구하고 있다. 상황에 따라서는 NATO에 대한 미국의 안보 지원 축소도 예견되어, EU의 군사적 독립 필요성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유럽 국가들은 러시아의 군사적 위협과 트럼프 행정부의 국방비 증액 요구에 따라 빠르게 국방비를 증액하고 있다. 2014년에는 NATO 회원국 중 미국을 제외하고 GDP의 2% 이상 국방비를 지출하는 나라는 영국과 그리스 두 나라에 불과했다. 그러나 2024년에는 17개국으로 증가하였는데 독일, 프랑스, 영국 등 유럽 핵심 국가와 더불어 러시아와 인접한 스웨덴, 핀란드 등 북유럽 국가 및 폴란드, 체코, 루마니아, 불가리아, 헝가리, 슬로바키아, 리투아니아, 라트비아, 에스토니아 등 동유럽 국가들이 대거 포함되어 있다.

EU 국가들의 국방비 증액 기조에 발맞추어, EU 집행위원장인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은 러시아의 실체적 위협을 알리고 유럽 국가들의 자주적 국방 능력 강화가 시급함을 촉구하기 위해 '유럽 재무장 계획(REARM Europe Plan)'을 25년 3월에 발표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초기에 과거보다 2배 많은 병력을 5배 빠르게 배치하는 '新 군사 모델(New NATO Force Model)'이 22년 6월 발표되었지만, 이는 전적으로 미국의 지원에 의존하는 계획이었다. 반면 이번 '유럽 재무장 계획'은 미국의 안보 지원을 고려하지 않은 유럽 자체의 군사적 독립을 준비하는 첫 계획이라고 볼 수 있다.

### □ 유럽 재무장 계획(REARM Europe Plan)

유럽 재무장 계획의 핵심은 8,000억 유로의 국방 재정을 확충하여 단기적으로는 우크라이나를 지원하고 장기적으로는 ‘자주적인 유럽 안보 역량을 구축’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5가지 국방재원 조달 방안을 제시하였다. 첫째, EU 재정적자 기준을 완화하여 회원국들이 GDP의 1.5%를 국방비로 추가 지출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를 통해 4년간 6,500억 유로의 국방재원을 확보할 것으로 전망했다. 둘째, 2~3개 EU 회원국이 공동으로 군사 장비를 조달할 때 유럽기금에서 1,500억 유로를 저금리 대출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다. 셋째, '21년부터 '27년까지 3,920억 유로 규모의 EU 정책 결속 사업(Cohesion Policy Programme)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국방 관련 투자 기금 모집을 증가시키도록 하였다. 마지막으로 유럽투자은행(European Investment Bank), 저축 투자 연합(Savings and Investment Union) 등 민간 자본의 국방 관련 투자 확대 방안이 제시되었다

이를 통해 확보한 국방재원을 가지고 투자할 군사력 분야도 제시하였는데 방공 체계, 미사일 방어, 포병시스템, 미사일·탄약, 드론 및 對드론, 사이버, 기동 체계 등이다. EU는 이러한 투자를 통해 단기적으로 우크라이나를 지원하는 한편, 유럽 방위산업 역량을 강화하고 공동구매로 행정 비용을 절감하며 무기체계 간 상호운용성과 호환성을 보장할 것으로 기대했다.

앞서 언급한 대로 유럽의 재무장 계획은 미국 주도의 NATO 안보 체계가 변화하는 신호탄이자 유럽 방위산업 생태계에서도 큰 변화의 시발점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냉전 종식 이후 유럽 국가들의 안보는 미국 주도 NATO에 의존하면서 자국 방위산업에 관한 관심과 투자가 저하되었다. 그 결과 영국, 프랑스, 독일 등 방산 선진국들도 최첨단 미사일이나 전투기 등 일부 무기체계 분야를 제외하고, 전차·장갑차 등 기동 무기체계, 자주포·탄약 등 화력 무기체계, 전투기·미사일·드론 등의 대공 공격에 대한 방공 무기체계 등 전통적 기본 군사력이 약화되었고 이와 관련된 방위산업 또한 취약해졌다. 그런데 이번 유럽 재무장 계획을 계기로, 취약해진 분야의 군사력을 강화하고 관련 방위산업을 육성할 것이다.

유럽의 국방 재정 지출이 커지고 무기체계 확보를 위한 투자가 늘어나면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새로운 방산시장이 열리고 방산 수출이 확대되는 긍정적 효과를 예상할

수 있다. 그러나 장기적으로는 유럽 방위산업의 재도약이 결코 긍정적 효과만 있는 것은 아니다. 어렵게 진출한 유럽 시장에서의 철수는 물론 세계 방산시장에서 유럽 방산기업들과 더 치열하게 경쟁하며 우리의 방산 수출이 급감할 수도 있을 것이다.

### □ 유럽 재무장이 K-방산수출에 미치는 영향

대부분의 유럽 국가들은 냉전 종식 이후 약 20년간 방산 분야 투자가 미미하여 현재의 생산 인력과 시설로는 대규모의 무기체계 구매 수요를 모두 충족할 수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방위사업청 및 수출 관련 방산업체 관계자들 의견을 들어보면 유럽 국가들의 방산 기반 재정비 소요 기간은 지상 장비의 경우 최소 4~5년, 함정의 경우 10~15년이 걸릴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따라서 단기적으로 유럽에서 발생하는 무기체계 구매 수요의 상당 부분을 우리나라 업체들이 수주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 중심에서 유럽 중심으로 ‘미국 안보 우산’ 탈피 전략도 우리 방산 수출에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스페인 소베라니아(Soberania) 국방전략연구소에 의하면 현재 EU 회원국 무기체계 획득의 해외 수입률이 78%이고 이 중 63%가 미국산일 정도로 EU의 해외 및 대미 의존도가 높은 상황이다. ‘미국 안보 우산’ 탈피 전략에서 나온 유럽의 재무장 계획은 높은 대미 의존도를 낮추게 될 것이고 그 과정에서 미국산 무기의 대체 장비 및 후속 군수지원 분야는 우리에게 새로운 방산 수출 기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부정적 측면도 있다. 유럽 재무장 계획은 유럽 방위산업 전략과 함께 회원국에 유럽산 무기 우선구매 요구를 확대할 것으로 전망된다. 2024년 3월에 발표된 유럽 방위산업 전략(European Defense Industry Strategy)에 의하면 2030년까지 50%, 2035년에는 60%까지 유럽산 무기 비중을 확대하게 되어 있다. 이 계획대로 진행된다면 우리 K-방산에는 큰 악재이자 도전이 될 것이고, 유럽에 대한 방산 수출 실적은 과거로 되돌아갈 수도 있을 것이다.

한편 유럽 방산 선진국들의 K-방산 견제도 심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미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24년 5월 EU 의회 연설에서 K-방산 견제 필요성을 제기한 바 있다. 4년간 8,000억 유로의 막대한 국방 재정이 투입될 예정인데, 그 열매를 유럽 방산기업이 아닌 K-방산기업에 순수히 내어줄 리 없다.

K-방산은 제품의 성능과 가격 그리고 조기 납품 등을 강점으로 하여 유럽 시장 진입에 성공하였다. 그리고 유럽의 막대한 국방비 지출에 따른 새로운 방산 수출 기회가 열리는 것도 사실이다. 유럽산 무기 비중 확대 및 공공연한 K-방산 견제라는 걸림돌들도 존재하지만 극복해야 하고, 또 극복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다만 유럽 재무장 계획이 성공하여 유럽 국가들의 방위산업 생산 기반이 재정비되고 보호주의 블록이 완비되면 우리에게 기회가 없을 수 있다. 관건은 유럽 방위산업 생산 기반이 재정비될 때까지 앞으로 4~5년을 우리가 어떻게 활용하는가에 달려 있다.

### □ 유럽 시장 방산수출 전략

8,000억 유로의 유럽 재무장 계획 중 EU 회원국들의 4년간 추가 국방비 지출이 6,500억 유로에 달한다. NATO 가이드라인에 따라 6,500억 유로의 20%가 무기체계 확보를 위한 장비획득에 투자된다고 하면, 1,300억 유로(약 199조원) 규모의 새로운 획득 수요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단기간 공급이 어려운 유럽의 방산기반을 고려할 때 1,300억 유로 규모의 새로운 획득 수요는 우리나라에게 정말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다.

먼저 국가별 맞춤형 전략을 추진한다면 우리가 충분히 수주하고 단기간에 공급할 수 있다. 러시아 안보 위협에 직면한 동부전선 국가들의 긴급 보강 수요를 예상하여 적극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 폴란드, 루마니아 등에 K9 자주포, K2 전차, 천무 등의 추가 물량 수출과 체코, 노르웨이, 에스토니아 등 신규 수출대상 국가를 적극 발굴해 나가야 하겠다. 방공 무기체계 및 드론·대드론 무기체계의 경우 독일 라인메탈 등 유럽 방산업체들과 공동으로 사업에 참여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

유럽 방산 공급망 완비에 대비한 장기적 계획도 지금부터 추진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유럽 방산 공급망에 편입하기 위한 다양한 시도를 지속 추진해야 한다. 기술이전, 단계별 생산 시설 현지화, 개량·파생형 무기체계 공동 연구·생산·수출, 조인트 벤처 설립, 유럽 방산업체 인수나 지분 투자 등 다양한 협력 청사진을 우리가 먼저 제시하여 주도적으로 새로운 협력관계를 구축해야 할 것이다. K-방산에 머물지 않고 EK(Europe-Korea)-방산으로 전환하는 유연한 대처가 필요하다.

EK-방산 전환과 관련하여 유럽 권역별 접근 방법도 차별화할 필요가 있겠다. 동유럽은 단계별 현지화(조립생산 → 구성품 현지화 → 현지 생산)와 과감한 기술이전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여 구매국이 체감할 수 있는 “방산 역량 강화 효과”가 조기에 나타나도록 하여 우리나라가 단순한 무기 판매국이 아니라 협력 파트너라는 인식을 심어주는 전략 추진이 필요하다. 폴란드를 중심으로 K-방산 성공모델을 만들고 폴란드의 성공 경험이 루마니아, 체코, 헝가리 등 주변국들에 파급되도록 과시적인 조치와 정교한 홍보 전략도 함께 추진해야 한다.

서유럽 및 북유럽 국가들과는 최첨단 기술 분야에서 공동 연구개발 기회를 발굴하고, 세계 최고 국방과학기술과 무기체계를 선도하는 협력 파트너십 구축이 필요해 보인다. 무인전투기, 우주, AI, 양자, 미래 통신 등 최첨단 기술 분야에서 공동 연구개발 기회를 만들고 개발 이후 공동생산, 공동판매 협력 관계를 구축하여 유럽은 물론 세계 방산시장에 공동 진출하는 전략 추진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한-EU 기업 간 조인트 벤처 설립, 한-EU 정부 간 공동 연구개발 프로젝트 추진, EU 무기체계 연구개발 프로젝트에 우리 정부의 자금 투자뿐만 아니라 기업 차원의 기술개발 참여 등 다양하고 유연한 협력 형태를 발굴하고 과감하게 추진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EU 방산 선진국들의 K-방산 견제를 방지하고 한국에 대한 보호주의 블록을 완화할 수 있도록, EU 의회를 대상으로 하는 외교적 노력도 추진할 필요가 있다. 폴란드는 EU 의회에 5번째 의석수를 가지고 있는 정치적 영향력이 큰 국가이고 노르웨이는 발트 3국에 정치적 영향력이 큰 국가이다. 또 폴란드와 노르웨이 모두 우리나라와 방산 협력 경험이 있으며 NATO에서 군사적 영향력이 큰 국가들이다. 따라서 폴란드와 노르웨이 두 나라를 EK-방산의 전략 국가로 삼아 주변 국가들로 ‘EK-방산 동맹 벨트’ 확대를 시도해 볼 수 있다.

### □ 방산 수출을 위한 정부 역할 강화

방산 수출은 우리 기업이 하지만 그 과정에 정부의 역할은 절대적이다. 특히 역동적으로 변화하는 유럽 안보 환경 변화에 대응하면서 방산 수출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기 위해서는 더욱 우리 정부의 적극적 역할이 필요하다. 앞서 살펴본 과감한 기술이전, 공동연구 협력 파트너십 구축, 한-EU 공동 연구개발 프로젝트 발굴 등은 정부의 선제적이고 신속한 제도 개선과 과감한 정책 결단이 필수적이다. 또한 EU 의회를 대상으로 우리나라에 우호적 환경을 구축하는 외교적 노력은 정부 차원의 일이고 국방·외교·경제·산업·문화·과학기술 등을 아우르는 범정부 차원의 역량 결집이 필요한 일이다.

한편 유럽이 우리의 주력 방산시장으로 남을 수 있을지는 향후 4~5년간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에 달려 있다. 향후 4~5년은 우리에게 기회가 될 수도 있고 재앙이 될 수도 있다. 유럽의 방산 기반이 재구축되기 이전 4~5년 동안 현재 방산 수출 실적을 뛰어넘는 성과를 달성해야 한다. 수출 대상국을 확대하고 새로운 수출 품목도 발굴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유럽 방산 기반 재구축에 대비하여 K-방산을 EK-방산으로 전환하는 다양한 조치들도 이 시기부터 시작되어야 할 것이다. 이 시기를 놓치고 유럽 방산 기반이 다져진 후에는 우리에게 기회는 다시 오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이것이 정부 역할 강화가 필요한 또 다른 이유다. 단기간에 집중하여 무언가를 이루어내야 할 때 정부 주도의 강력한 리더십이 힘을 발휘할 것이다.

최근 대선 기간 중 다양한 방산 수출 관련 공약들이 제시되었다. 맞춤형 수출 승인, 금융지원 다변화 등 단순 정책 제안부터, 대통령실 주도 방산컨트롤 타워 구축 등 조직과 관련된 큰 공약도 있다. 모두 좋은 공약들이다. 관건은 신속하고 확실하게 그리고 지속적으로 공약 관련 정책·제도를 추진하는 것이다. 또한 공약에 너무 함몰되지 않고 기존의 우리 K-방산의 강점인 ‘좋은 성능, 낮은 가격, 빠른 조달 그리고 건전한 방산 생태계’가 유지되도록 하는 한편, 새로운 현안과 정책 제안을 받아들여 실질적 성과를 창출하는 것이 중요하다. 유럽 지역 방산 수출 전략도 이와 같은 맥락이다. 본고에서 언급된 사안들이 정부 정책에 반영되어 향후 4~5년을 실기하지 않고 K-방산 수출 대국의 길로 나아갈 것을 기대해 본다.

## 저자 소개 / BIO



### 서형진

- 現) 국방기술품질원 연구자문위원
- 前) 방위사업청 차장
- 미국 위스콘신-매디슨 대학 국제관계학 석사

Email: tjckwkd@dtaq.re.kr

서형진 국방기술품질원 연구자문위원은 행정고시 38회로 1995년 국방부에서 공직을 시작하여 2022년 방위사업청 차장을 마지막 보직으로 퇴직하였다. 방산정책과장, 전력계획과장, 전차장갑차사업팀장, 획득기획국장, 기반전력사업본부장 등 정책과 사업을 두루 경험하였다.

### Hyeung Jin SEO

- (Current) Research Advisor, DTaQ(Defense Agency for Technology & Quality)
- (Former) Deputy Administrator, DAPA (Defense Acquisition Program Administration)
- Master's Degree in international Relation Affairs, University of Wisconsin-Madison

Mr. Hyeung Jin Seo, Research Advisor at DTaQ(Defense Agency for Technology & Quality), began his public service in 1995 at the Ministry of National Defense (MND) after passing the 38th National Civil Service Examination. He retired in 2022 as the Deputy Administrator of DAPA(Defense Acquisition Program Administration). Throughout his career, he held key positions in both defense policy and acquisition, as the Director of Defense Industry Policy, Director of Force Planning, Director General of Acquisition Planning, Program Manager for the Tank and Armored Vehicle Program, and Head of the Base Defense Programs Division.